

“위기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지역 경제, 도약의 해”

2025년 구례군 현황·주요 역점사업

- #현황**
- 인구수 2만4056명
 - 예 산 3462억원
 - 직원수 553명

- #역점사업**
- 지리산케이블카, 오산케이블카 설치
 - 지역활력타운 산에마을, 청년주택, 농촌 유학타운 조성
 -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산수유스카이워크, 지리산정원 확장
 - 도지재생 뉴빌리지 사업, 웰니스복합센터 조성
 -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 구레밀, 태추 단감 재배 확대
 - K-푸드 특성화 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2025 새해설계

김순호 구례군수

지역활력타운·농촌유학단지 젊은 세대·도시민 유입 도모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2개 권역 도시재생사업 완료

“새로운 한 해, 위기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지역 경제를 선보이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청년주택, 농촌유학타운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도시민들은 새로운 꿈을 안고 우리 구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될 것입니다.”

7일 김순호 구례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미래 농업 육성 등을 중점으로 2025년을 변화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지역활력타운 산에마을, 청년주택, 농촌유학타운 2단지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와 도시민의 유입을 도모한다.

김 군수는 “지역활력타운 산에마을은 마치 새싹이 자라나 숲을 이루듯 구례의 미래를 키우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옛 읍사무소 자리에 들어설 역사기록관과 청년스튜디오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고 과거의 가치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년 희망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하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100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철의대대 이전 부지에 섬진강 그린케이션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 온천지구에 산수유 스카이워크와 힐링꽃길을



김순호 구례군수.

조성하고 화염지구는 지리산역사문화관광과 발달가슴곰 보금자리를 연계해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화염야행길도 새롭게 조성해 야간 경관 명소로 발전시킨다.

김 군수는 “지리산정원은 기초봉 전망대와 연결해 확장하고, 산림교육센터와 나만의 별장을 신규 조성해 국가정원 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이라며 “구례군 전역을 정원도시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면서,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읍에 추진하고 있는 2개 권역 도시재생사업 마무리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봉남리 재탄생도 모색한다.

김 군수는 “웰니스복합센터는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지로, 섬진강변 사계절 꽃길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선사하는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예전 선관위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재된 공공기관은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군청 주변으로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읍면 중심지의 기초생활거점시설 조성으로 생활여건도 개선한다. 서시천 주변에 미디어 파사드 분수를 설치하고 계산·선월지구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을 실시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한다.

미래 농업 분야에서는 흙 살리기 박람회를 내실화하고, 구레밀 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다시마액비 지원 확대와 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으로 흙 살리기의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지도와 전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물부 육성하고 있는 구레밀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구레밀 사용 시 지원액을 확대한다. 빵 포장재와 빵 축제 참가 지원 등 구레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추 단감 생산단지 확대 조성하고 성과가 입증된 수박 수직 재배를 지역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 재배를 지원해 농가 소득도 증대시킨다.

이외에도 구 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새롭게 단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K-푸드 특성화 학교를 조성해 미래 세대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월 출생기분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김 군수는 “괴테는 파우스트에게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가 뱀처럼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의 껍질, 습관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구례는 지금 과거의 껍질을 벗고 더 큰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군민 여러분이 있다”고 자부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접수

농촌진흥 22개사업 총사업비 22억 투입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총사업비 22억원)에 대해 오는 2월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촌진흥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농업인 분야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 발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 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구례군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신기술 시범 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현지 심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마을 이장에게 배부한 사업신청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2월3일까지 읍면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구례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를 50%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해당 정책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19 확산 대응책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농업기계 활용도가 약 20%씩 증가하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조치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임대 농업기계 활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과 구례소방서가 최근 구례5일시장 내 주요 지점에 소방 릴 호스를 설치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5일시장, 소방릴호스 설치·상인 대상 교육

구례군과 구례소방서는 최근 구례5일시장 내 주요 지점에 소방 릴 호스를 설치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소방 릴 호스는 화재 초

기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로, 시장 내 주요 지점에 전략적으로 배치됐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상인과 고객 모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교육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방

법과 소방 릴 호스의 올바른 사용법이 상세히 다뤄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5일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 예방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 공무원, 희망2025나눔캠페인 동참

구례군 김순호 군수와 공무원들이 성금 2519만1210원을 모아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지난 달 1일부터 20일까지 군 산하 직원 612명

의 자율적 참여로 모인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희망 2025나눔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군민이 캠페인

에 함께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구례를 가치있게’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0)로 문의하거나 방송사,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